

5. 문제점 및 대책

건물내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진화작업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주계단이 피난계단이어야 하는 등 건물에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층별 방화구획도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건물의 일부(전체 벽선의 15%)만이 소방도로에 면해 있어 건물내부까지 소화수가 미치지 못하였으며 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내 업소마다 무질서하게 가연성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훈련의 강화, 피난계단 및 층별 방화구획등 주요 방화시설의 설치, 가연성내장재의 사용을 억제하였다면 화재발생의 방지 또는 피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S 시장(1,4 지구) 화재

11번째의 S 시장 대화—화인은 미상—(건물피해액 약 25억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대신동

건물명 : S 시장 1,4 지구

소유주 : 개인 분양

연 령 : 1913년 자연시장으로 발생, 1914년 시장으로 구획지정

61년부터 4개지구가 모두 현대식 건물로 건축됨.

69년에 2지구, 72년에 1지구, 73년에 3,4지구가 모두

민영화되어 각 점포별로 개인분양됨.

2. 건물 개요

S 시장은 총대지 20,865.9㎡, 연건평 46,734.6㎡, 점포수 4,192개, 점도면적 27,663.9㎡의 영남 최대의 시장이다. 시장은 대체로 4개 지구로 나뉘어졌으며 각 지구마다 2층규모의 단일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들은 1960년의 대화로 소실된 기존 시장터에 대구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그후 년차로 입주상인들이 불하하여 현재는 모두 개인분양되어 있다. 지구별로 대표적인 취급 상품은 1지구가 포목, 2지구가 주단, 3지구가 일용품이며, 4지구엔 라사부가 있다. 각 지구는 2층에서의 상호연결을 위해 육교와 같은 형태의 연교를 두고 있어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다리 위에는 노점상인들이 통로를 메우는 곳도 있었고, 1, 4지구 사이처럼 철골트러스를 올려 완전한 건물형태를 갖춘 점포도 많이 있었다.

3. 화재 상황

화재는 1975. 11. 20. 21시 30분경 4지구 1층 3열 점포에서 발생했다. 최초의 목격자인 경비원(A)에 의하면 마지막 경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전 4지구 1층 3열의 셔터가 열리면서 3열 경비원(B)이 "불이야"하면서 뛰어 나왔다고 한다. 이때 3열의 S 상회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21시 45분경 연락을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시장내부는 점포가 합판 간막이등 불에 타기 쉬운 목조로 되어 있고 인화성이 강한 의류등이 쌓여 있어 불길이 삼시간에 번진데다 점포주들이 하오 7시쯤 일제히 셔터를 내리고 귀가한 뒤여서 건물내부의 주수가 곤란하였고, 화학섬유의 독한 냄새와 연기 때문에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웠다. 불은 4지구 1층을 모두 태우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번졌으며 4지구가 전소되자 22시 30분경 1지구로 연결된 길이 8m, 너비 5m의

다리위에 있는 가설점도들을 태우며 1지구로 번졌다. 다리에 면한 1, 4 지구 외벽은 블록과 철제셔터로 차단되어 있었는데 상풍이 타면서 발생한 고열이 철제셔터를 통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1지구 2층에서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층에서는 소방관들이 계단의 방화셔터를 내리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살포했기 때문에 연소를 막는데 성공했다. 진화작업에는 한.미소방차 48대, 소방관 120명, 경찰관 320명, 의용소방대원 110명, 시직원 600명 등이 동원되었다. 익일 01시 40분경 4지구 건물골조가 붕괴되면서 내려앉기 시작하였으며 1지구 상층의 상풍이 다 타고, 진화된 것은 화재발생후 5시간이 지난 11월 21일 02시 30분경이었다. 확인은 이재현장이 붕괴되어 골 밝혀지지 않았으나 야간경비원의 담배불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다.

4. 피해 상황

피 해 장 소	면적 (㎡)	점포수	점포면적 (㎡)	취급상품	
4 지구	1 층	4,725.6	727	2,946.9	라사, 양장지, 메리야스, 한복등
	2 층	4,900.5	705	2,468.4	주단, 라사, 수예품, 메리야스, 작업복등
1 지구 2 층	3,315.8	859	1,834.8	도목, 주단	
1, 4지구 다리	825	86	359.7	주단	
계	13,770.9	2,377	7,627.8		

건물피해액 : 56,024,945원

보험금액 : 165,026,820원

보험금 지급액 : 50,599,973원

5. 문제점 및 대책

가. 소방시설의 미비(당 협회 대구지부 점검결과증 주요사항)

- (1) 1,5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미설치
- (2) 소화기의 분산배치가 안되고 1, 2층 계단부근에 집중 배치 되었으며 포말소화기 총약 미비
- (3) 옥내소화전 시설미비(수량부족, 가압장치 미설치, 호스노후 등)

나. 화재발생위험의 방지(당 협회 대구지부 점검결과증의 일부)

- (1) 일부점포의 벽걸전구에 비닐코드 사용
- (2) 일부점포의 형광등 안정기 가연재와 이격설치 안됨.

다. 소화시설의 사용법등 소방훈련의 부족 및 소화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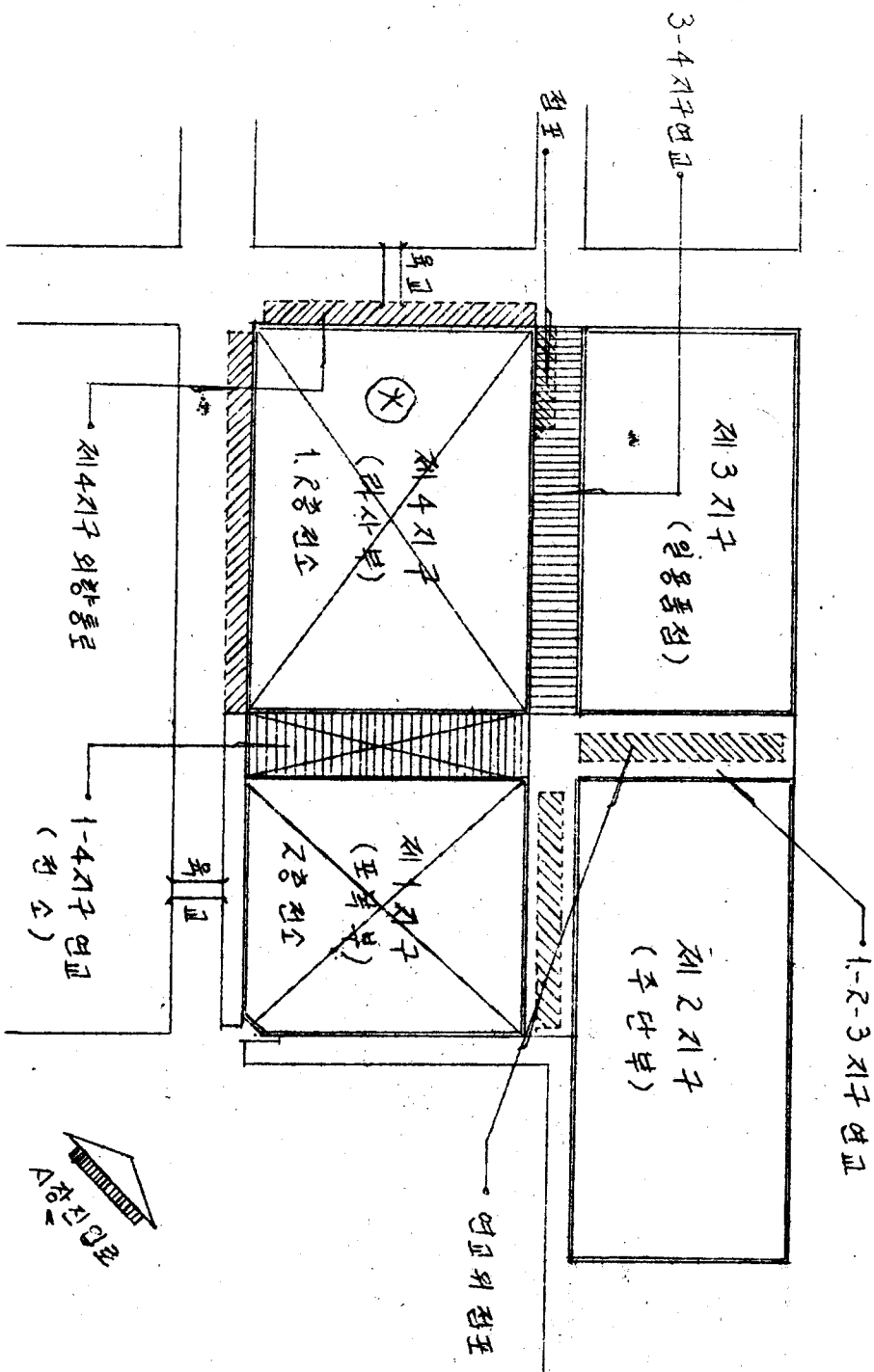
건물내에는 지구마다 1, 2층에 6개씩의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상경보벨 44개소, 옥외소화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평소 경비원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고 각종 소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홀로 이처럼 많은 기구와 시설들을 단 1개도 사용하지 못했다.

라. 도난방지용 첼제셔터로 인한 소화활동 장애

점포의 도난방지용 첼제셔터는 피해를 대형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불이 나자 경비원들은 창문을 열고 탈출했으나 셔터를 외부에서 열 수가 없어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어 점포마다 가득찬 값비싼 상품들이 고스란히 잿더미로 되었다.

1. S 시 장 배 치 도

S 1/1.500



마. 무질서한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

영세상인들이 각 점포마다 내부 간막이를 칸판등으로 막아 놓고 1지구와 4지구를 잇는 다리마작 합판으로 막아, 노점을 만들어 4지구에서 일어난 불이 이들 노점을 타고 1지구로 쉽게 번지게 하였다.

바. 소방시설의 완비, 화재발생위험의 제거

소방훈련의 강화와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제한은 물론 시장 화재에서는 특히 칼리셔터로 인한 스프링클러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등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참조: 별첨 1)

L 빌딩(S볼링장) 화재

옆길터진 스텔트가 사용중인 전기근로에 인화,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 안됨. (건물피해액 6천 8백여만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건물명 : L 빌딩(S볼링장)

소유주 : H 흥산(주)

2. 건물 개요

대지 1,595.88m², 1972년 2월 건립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6,050.3m² 규모의 사무실용 건물로 4층을 제외하고는 건물구조가 전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조적조였고 4층은 본 건물을 신축한 후 볼링장으로 쓰기 위해 철골트러스위 스텔트지붕으로 증축됨.